

현장이야기
전주 모자이크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든든하고 조화로운 모·자·이·크 교회

모이고 · 자랑하고 · 이끌어주며 · 크는



정갑준 목사는 총회신학교와 대학원, 천안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고지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후 전주동부교회 부목사로 5년간 시무했다. 1998년 서신동부교회(현 모자이크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한 사람 철학'을 바탕으로 사역하고 있다.

‘모자이크교회? 교회 이름 참 독특하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림을 이루는 교회라는 뜻일까? 아니면 모자이크 양식이 발전했던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으로 향했다. 예배당을 찾았을 때, 이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예배당 앞에 세워진 소형 탑차에는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어 주며 크는 교회’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탑차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뤄지는 호떡 전도를 위한 차량이었다.

레스토랑이 있던 건물을 인수해 개조한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한 예배당 1층 식당에서 몇 명의 여 집사들이 떡국을 끓이고 있었다. 취재차 방문했다고 소개하자 환영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떡국을 나눈다.

이렇게 모자이크교회의 첫인상은 특별한 격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친구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의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처음 교회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그 사람 냄새가 바로 정갑준 목사와 문점엽 사모 부부로부터 나오는 ‘광야의 냄새’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무일푼의 신학생 시절

정갑준 목사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주일학교에 누나와 함께 나가 신앙을 알게 됐고, 중학생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를 치른 상황에서 집이 파산해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정 목사는 누나가 살고 있던 여수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전도사와 결혼해 목회하고 있던 누나의 영향을 받아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사실 집안의 파산 이후, 정 목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집안의 경제적 문제도 심각했지만, 신학교를 진학하는 데에도 갈등이 심했다. 당시 교단이 합동과 개혁신(주류와 비주류)으로 나뉘는 시기였기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처음에는 합동측 칼빈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지역색이 너무 강해 그만두고, 다시 개혁신학원 쪽으로 진로를 이동했다. 정 목사는 가정도 평범하지 않았고, 교단도 비주류를 선택하는 고행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여수에서 잠깐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사모와 6년 반 동안의 원거리 연애 끝에 1989년에 결혼했다. 정 목사는 당시 전혀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다고 회고한다. 신학교에 입학해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6,200원밖에 없었다. 결혼을 할 당시는 아직 졸업도 못한 신학생 2학년 시절이었다. 학비, 생활비를 모두 자신이 벌어야 했던 상황에서 친구로부터 30만원을 빌려서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교육전도사 월 사례비가 10만원인데, 가리봉동 쪽방 집에서 아무런 세간도 없이 신혼 살림이 시작됐다. 그 쪽방의 방세가 월 7만원이었는데 십일조 1만원을 드리고 방세를 내면 2만원으로 살아야 했다.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갈 때도 많았다.

사모의 친정어머니가 고속버스로 보내준 김치를 가지러 가야 했지만, 터미널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부부가 가리봉동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걸어서 그 김치를 가져온 적도 있었다. 시장에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주워서 삶아 먹으면서도, 그 풍성함에 감사하던 시절이었다.



모자이크교회의 첫인상은 특별한
격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친구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의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 그 자체였다.



문점엽 사모는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다며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채워주심을 경험한 시절이었다고 말한다. 주워 온 배추 시래기를 끓여 먹었지만 그 풍성함에 감사했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져온 김치를 밥도 없이 맛나게 먹었던 시절을 지낸 것도, 결국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이 된 것이다.

제자훈련의 본질을 경험한 섬 사역

정 목사는 당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는 원우회 회장으로 섬겼다. 그런데 어느 날 원우회에 한 섬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왔다.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믿는 몇 가정이 모여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을 섬겨줄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 목사는 원우회 회장으로서는 원우들에게 이 요청을 알렸지만, 7~8개월이 지나도록 섬으로 가겠다는 지원자는 없었다.

정 목사도 솔직히 서울에 계속 머물고 싶었다. 원우회 회장이기도 했기에 큰 교회 부교역자로 소개가 들어오기도 했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개척할 생각도 했다. 정 목사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사모와 함께 40일 작정기도를 드렸는데, 문 사모는 섬으로 가야 한다는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섬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정 목사에게 사모는 살고 있던 방을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맞불(?)을 놓았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정 목사 부부는 8개월 된 딸을 데리고,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3시간 반이 걸리는 섬으로 들어갔다.

문 사모에게 섬 사역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네다. 그곳에서 살던 집에 지네가 바글거렸던 것이다. 서울에서도 가리봉동, 연희동의 쪽방에서 지내야 했지만 섬이라고 형편이 그리 나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그래도 정 목사 부부는 섬에서 집세 걱정, 먹을 것 걱정 안 하게 됐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3년 간 목회할 수 있었음에 감사해 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 신성한 해산물도 먹여주시고, 그때까지 못 먹었던 것들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우리 가정의 영육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다섯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섬 전체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도 있었고, 서울에서 온 애까지 딸린 젊은 부부가 얼마나 견디겠느냐는 냉소적인 시선 앞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정 목사 부부가 사역하던 3년 동안 그 섬에 있던 70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서울 전학도 시키고,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섬의 사람들과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역에 열매를 허락하셨다.

전통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가치 발견

그렇게 섬 사역에 전념하고 있던 정 목사에게 갑자기 금식 기도를 요구하시는 내면의 부르심이 왔다. 정 목사는 워낙 자주 끼니를 굶어서인지, 금식만은 하지 않으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금식기도에 들어가게 됐다. 그 기도 기간에 전주 동부교회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다. 그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해 달라는 연락이었다.

결국 정 목사는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렸다. 교인들이 모두 정 목사 부부를 보낼 수 없다고 집에 찾아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 목사는 동부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정 목사 부부에게는 동부교회에서 5년 간 사역했던 기간이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 안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다고 고백한다. 그 안에서 각 가정을 심방하며 깨닫게 된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정 목사가 제자훈련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섬에 들어가기 전 신학생 시절부터였다. 당시에는 사랑의교회에서 나오던 교재가 서점에 시판되지 않았기에 사랑의교회까지 찾아와서 그 교재를 구입하고, 옥한흠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듣기도 하면서 관심을 가졌다.

어쩌면 정 목사 부부가 제자훈련의 기반을 닦은 것은 섬에서 사역하던 3년이었다. 비록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나, 그들과 삶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섬에서

도 옥한흠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신청해서 꾸준히 그 설교를 들으며 제자훈련의 철학을 가꿔 나갔다.

그랬던 정 목사가 동부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며, 각 가정을 심방한 경험이 교회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각 사람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결국 제자훈련이 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정 목사는 동부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도 부목사 신분이었지만 CAL세미나를 받기 위해 몇 번이나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아직 CAL세미나를 받지 않았기에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평신도를 깨운다』와 교재만을 구입해 동부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제자훈련의 철학을 키워 나갔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 교회 개척

동부교회에서 5년간의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좀 더 편한 길에 대한 제의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한 사람 철학을 갖게 된 이상 개척을 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됐다. 그래서 1998년 전주 서신동 한 상가에 모 교회였던 동부교회의 이름을 따서 서신동부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정 목사 부부가 서신동부교회란 이름으로 개척을 했지만, 개척 당시에는 동부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개척을 위해 따라 오지 않았다(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모 교회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고 한 가정만 합류했고, 그 이후에 다른 교회를 거쳐 한 가정만 합류했다). 모 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뿐 아니라, 정 목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정 목사가 하려고만 했다면 적어도 몇 명은 데리고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 목사 부부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길을 걷기로 했다.

1998년 2월 22일, 이 교회의 첫 주일예배가 드려졌다. 예배 인원은 정갑준 목사, 문점엽 사모, 그리고 세 딸 다솜, 다희, 다은 등 5명이 전부였다. 도와주는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채돌도 되지 않았던 셋째 딸을 업고 다니며 부부가 전도했다.

예배당은 모 교회의 지원을 받아 얻은 한 상가의 23평 공간이었다(이후 그 지원금도 모 교회에 모두 상환했다). 그럼에도 개척한 후 7년 차까지는 수평 이동 교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

상적인 이동이 아니면 교회등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전도한 새신자이거나 전주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온 사람들만 서신동부교회, 현 모자이크교회의 등록교인이 될 수 있었다.

정 목사는 개척한 그 해에 CAL세미나에 참석한 이야기를 해 줬다. “마침 안성수양관이 완공이 돼 거기서 이뤄진 첫 CAL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죠.” 문 사모도 이후에 CAL 세미나를 수료했는데, 정 목사 부부는 CAL 세미나에서 “우리가 섬에서 했던 것이 제자훈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종교적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훈련을 이미 해 왔기에 두 사람은 그대로 실천할 과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2기 제자훈련을 받은 김선수 집사는 당시 서신동부교회가 개척된 지 1년 됐을 때에 등록한 사람이다.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속초에서 전주로 이사를 와서 집 앞 상가에 있던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개척한지 1년 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앞으로 2년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상가 교회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년 쯤 다니고 있네요.”

한 사람이 아쉬운 개척 교회 사모가 ‘다녀보고 안 맞으면 떠나도 좋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 목사 부부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실천했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교인이 몇 명 정도 늘어나자, 1999년 3월 남자반 1반, 여자반 1반으로 1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생은 남자반 3명, 여자반 3명이었고, 여자반 3명 중에는 문점엽 사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훈련이 지금까지 남자 3기, 여자 6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2기, 5기 여자 제자반은 훈련생이 단 두 명이기도 했고, 훈련생이 모집이 되지 않는 해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 목사 부부는 결코 제자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9년부터 시작한 제자훈련인데, 겨우 6기 제자반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정 목사에게 결국 위기가 찾아왔다. 개척 후 4년째, 가장 사역이 활발할 때에 정 목사가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병원 심방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

서 쓰러져 자신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정 목사는 그 사건 이후로 회복까지 약 5년의 시간은 교회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아쉬움이 남은 기간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때 심하게 탈진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훈련된 사람들 덕분에 사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정 목사는 덩덤하게 말했지만, 사실 정 목사는 그때 이후로 두 번이나 더 같은 일을 겪었다. 16년의 개척 교회 사역 중, 과로로 세 번이나 쓰러질 정도면 정 목사에게 주어진 사역의 짐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목사 부부는 결코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명씩 전도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교인들이 늘어 2001년에는 80평 상가로 예배처소를 옮기게 됐고, 2008년 개척한 지 10년 만에 현재 위치에 있던 4층 레스토랑 건물을 매입해 예배당으로 개조하고, 교회 이름도 서신동부교회에서 ‘모자이크교회’로 개칭했다.

현 건물 구매금액이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의 10배였다. 그 기간에 건축현금 작정을 한 적도 없고, 현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었다. 집사들이 교회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고, 훈련받은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 이전을 추진했다.

현 예배당을 구입한 후에는 건축비가 모자랐기에 교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직접 내부수리를 했으며, 여 집사들이 모여서 청소하고 인테리어를 한 것이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담보를 잡히고 은행 빚을 얻었고, 8억원이었던 은행 빚이 4년이 지난 지금은 3억원으로 줄었다. 이 과정 가운데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 목사 부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보다는 훨씬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위의 사역자들과 교인들로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다. 사실 정 목사 부부도 기존 교인 3~4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처음 주신 마음을 붙잡았고, 다른 교회에서 수십 명이 모자이크교회로 한꺼번에 옮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 목사가 모두 거절했다. 정 목사는 큰 교회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원했기에 비록 힘들더라도 원칙을 지켜 나갔던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제자훈련

현재 모자이크교회에는 남자 제자반 한 반과 여자 제자반 두 반이 개설되어 있다. 그중 여자 제자반 하나는 사모가 맡고 있다. 제자훈련을 시키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 정 목사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모자이크교회의 훈련생은 매주 한 권씩 독후감을 쓰고, D형 큐티를 한다. 매과 생활속제가 나가고 주간계획서와 생활일기를 제출하며, 제자훈련 기간 동안 성경을 1독 한다. 64구절 암송을 누적으로 외워서 마지막 주에 64구절 전체를 전 교인 앞에서 암송한다. 이렇다 보니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고 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는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이 이 교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다.

제자훈련 과정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5주 새가족 모임을 하고, 새가족 모임을 마친 사람들이 양육반(두란노 일대일 제자훈련 교재 사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최근에는 새가족 모임과 양육반을 통합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양육으로 이끌고 있다. 제자훈련 진입 전 성장과정으로 구역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피플퍼즐 등의 과정을 마치게 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렇게 양육반을 마친 사람들로 제자반을 구성하는데, 제자훈련을 받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을 경우에만 제자반에 편성하고, 절대 강권하지 않는다. 물론 제자반을 마친 이후에는 사역반이 진행된다. 제자반이 구성되지 않아서 제자훈련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양육과정은 매년 전후반기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 모자이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은 모두 35명에 불과하지만, 제자훈련 철학은 전 교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 사모는 “어떤 사람들은 모자이크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책 안 읽고, 성경 안 읽으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라고 말한다. 제자반에 주어진 독서과제는 다른 교인들에게는 추천 도서가 돼 교회 식당 벽에 꽂혀 있다. 전체 교인에게 독서와 큐티를 독려한다.

모자이크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오직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져 섬기다가 모자이크교회로 옮긴 김하수 장로도 장로이면서도 올해 3기 제자훈련을 받고, 수료를 앞둔 상황에서 모자이크교회의 장로로 신임을 받아 당회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모든 중직자들이 제자훈련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교회는 비록 작지만



아직 모자이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은 모두 35명에 불과하지만, 제자훈련 철학은 전 교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들림 없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지금 모자이크교회의 장년 교인 수는 약 120명, 교육부서는 약 70명이다. 재적 인원과 출석 인원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거의 16년 동안 폭발적으로 교인이 늘어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해 성도 수가 줄어든 적도 없었다. 문점엽 사모는 이 부분을 감사의 기도제목으로 삼는다.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한 것이 교회 내에서 충돌이 없었어요. 훈련된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제자훈련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쉬지 않는 전도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라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모자이크교회는 개척 이후로 한 번도 전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교회다. 개척 초기부터 수평이동 교인을 받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개척 초기에 정 목사 부부가 주변 지역을 돌며 전도했다가 지금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소형 탑차를 끌고, 주변 지역에 나가 호떡을 구워 지역민에게 돌리며 전도하고 있다.

교인들의 고향 마을이나 요청이 있는 지역 교회에 한 달에 1회씩 호떡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마산, 여수 섬마을, 여천, 영광 등을 방문했다. 글 없는 책을 사용한 전도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노방전도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06년에 시작한 새생명축제를 매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을 방문해 전도하는 사역도 꾸준히 감당하고 있다. 문 사모는 사실 전도가 너무 힘들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전도는 본질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현재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선경자 집사는 호떡 전도를 통해 이 교회로 인도됐고, 김지영 집사는 새생명축제를 통해, 김순연 집사는 병원 심방과 전도를 통해 이 교회로 인도된 사람이었다. 많은 숫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았던 전도의 열매가 제자훈련을 통해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국내 전도여행과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파송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도 충실하려고 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훈련

물론 모자이크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 다수가 전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보니, 목사 부부가 일일이 교회생활의 작은 영역까지 본을 보여줘야 한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안 가르쳐줘도 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지시가 아니라 모범이다. 일을 시키지 않고 목사 내외가 직접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 목사가 권위적인 말을 쓰는 것은 오직 설교 강단 위에서뿐이다. 강단에서 내려오면 다른 성도들과 전혀 차별 없이 장갑 끼고,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한국 교회의 고질병인 왜곡된 권위주의, 교권주의는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양종식 집사는 호떡전도를 나갈 때마다 호떡 반죽을 손수 준비하고 현장에도 함께하며 직접 호떡을 굽는 정 목사의 모습에서 큰 인상을 받았다.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김용순 집사는 정 목사의 인상에 대한 질문에 “호떡을 예쁘게 잘 구우시는 목사님이였다”고 답한다. 어릴 때 전통 교회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던 김지영 집사는 모자이크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전혀 재정적 부담감을 지우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모자이크교회에서는 행사나 기념물을 위한 개인의 현금이나 재정부담이 일체 금지되어 있다. 모자이크교회의 첫 임직식 때에는 정 목사 가정이 임직한 여덟 분에게 양복과 한복을 선물했다. 이후에는 교회 재정으로 임직자에게 선물을 한다. 임직한 사람이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되었다가 모자이크교회로 옮겨 와 최근 당회원으로 신임된 김하수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에서 가족 수련회를 가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다른 교회였다면 당연히 젊은 집사나 청년들이 고기 굽고 있고, 처음 구워진 고기를 목사, 장로들이 먼저 먹으라고 가져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와 보니 목사님이 불 옆에서 모자 쓰시고 고기를 구우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 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거기서 ‘목사님은 말로만 섬기시는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

을 짐작했죠.”

김 장로는 모자이크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자훈련이라고 말한다.

“말하기에 조심스럽지만 한국 교회 장로들은 제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들이 내적 신앙의 권위를 가져야지, 피택 받았다는 것만으로 권위적으로 나가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모자이크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정갑준 목사 자신이 전혀 권위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 목사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이지만, 여러 교우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그의 이런 신념을 분명하게 보여준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교회 이름을 ‘모자이크교회’로 바꾼 방식이다.

모자이크교회는 사실 정 목사가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이름이었다.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부부가 한 명씩 전도해서 세운 교회라면 이름을 바꿀 때 개척한 목사가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정 목사는 교회 이름을 교인들에게 공모했다. 정 목사에게 이 교회는 결코 ‘내 교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제안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벽에 붙여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에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 그때 공모된 이름이 46개나 되었다고 한다. 정 목사의 ‘모자이크교회’라는 이름은 그 46개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만하면 모자이크교회는 결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만하지 않겠는가.

사역의 비결, 건강한 가정

실로 모자이크교회 개척기는 힘든 길만을 선택해 원칙만을 따르는 길이었다. 과로로 세 번이나 쓰러지면서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을 찾는다면, 바로 정 목사 부부가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점엽 사모의 헌신적 내조와 늘 그것에 감사를 표하며 인정해 주는 정 목사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과 빌린 돈 30만원으로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문 사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삶으로 정갑준 목사와 동행했다. 정 목사가 쓰러지는 위기에서도, 거의 교회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따랐다.

정 목사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모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우리 교회에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사모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도가 없었으면 절대 지금까지 못 왔죠.”

이 두 사람에게도 편하게 가고 싶다는 유혹이 왜 없겠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자훈련 사역을 하다 보니, 어디 한 번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그 힘든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정 목사 부부에게는 그저 짝꿍이 친구





“우선 우리 모자이크교회가 ‘강하고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강하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처럼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가의 전부이지만 그 시간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자이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 가정이 살아난다고 한다. 나뻐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한다. 정 목사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고, 훈련생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됐던 것이다. 문점엽 사모는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사모는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인데, 목회자들 부부세미나에 가보니, 사모님들이 그 기본을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기들은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자신을 죽이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사모의 위치인데, 사랑하는 것을 못 하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목회자 가정이 먼저 서지 않으면 교회가 될 리가 있나요. 과거에는 그것을 감추고도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안 되죠. 저는 사모라서가 아니라 그저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기도제목이었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은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점엽 사모의 교회에 대한 꿈은 성도들이 가정적으로 신앙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훈련으로 바로 세워진 각 사람이 각 가정을 변화시킬 때에만이 그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문 사모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

정갑준 목사는 전주 지역의 영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전라북도과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는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 목사는 전주 지역의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고 보고 있다. 전주의 교회들 사이에 새벽기도가 사라진 것이 오래 됐다고 한다. 전주 신시가지의 자기 예배당을 가진 70개 교회 중, 19개 교회만이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 금요기도회는 대부분 없어졌고, 중·고등부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다. 정 목사 부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목회자들이 한 사람 철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으며, 교회들이 소그룹 중심의 체질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한다.

“소그룹 속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소그룹에 못 들어오면 안 자라요. 앞으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편하게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교인들을 어떻게든 소그룹 안으로 끌어들이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게 해야 해요.”

정 목사 부부는 이 문제에서 모자이크교회도 자유롭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정 목사 부부는 교인 120명이 전부 가족과 같은 관계이길 희망하지만, 아직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모자이크교회에는 다락방 6개와 소수의 독서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점점 참여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교회에 등록한 지 10년이 되는데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도 많다. 그나마 훈련된 이들을 중심으로 나눔과 교제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정 목사 부부는 결코 방심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 목사는 모자이크교회의 목회자로서 비전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우리 모자이크교회가 ‘강하고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품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비전을 나누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강하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 목사에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정 목사는 이



렇게 말한다.

“제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런데 참 목사님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제게 와서 제자훈련에 관한 자료들을 요청하시곤 하시는데, 사실 제자훈련은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자료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제자훈련을 어떤 방법론으로 생각하시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시지만 제자훈련은 방법론이 아니거든요.”

정 목사에게 있어서 제자훈련은 인도자가 먼저 변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목회철학이다. “저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물으러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활동 정리부터 하라고 해요.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절대 제자훈련을 못 하거든요. 훈련생들에게만 숙제 내주고 목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목사도 책을 다시 봐야죠, 성경도 열심히 봐야죠. 큐티와 성경 암송도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활동들을 하겠습니까?”

결국 제자훈련의 성패는 교재도 커리큘럼도 아닌, 제자훈련 인도자에게 달려있다는 평범하지만 준엄한 진리를 정 목사 부부는 철저히 깨닫고 있었다. 많은 사람을 꿈꾸지 않고, 성도들

의 위에 서기를 원치 않는 진정한 제자훈련 지도자의 모범으로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은 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참 목자의 모습이었다. 더불어 성도 한 영혼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 선지자에 게서 나는 광야의 냄새가 동시에 느껴졌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광야의 냄새가 난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주 모자이크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방금 광야에서 걸어 나온 선지자가 터를 닦고 세운 것 같은 교회”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진리를 체험한, 성전 꼭대기에 서기를 거부하고 많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며 훈련해 세워간 교회,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서 강한 광야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정갑준 목사와 문점엽 사모의 꿈과 같이 이런 강하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주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박희원 목사〉